(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7-2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 창세기 1:3의 '빛' 창조, 하나님의 명령인가, 소망인가?

우상혁*

1. 들어가는 말

『새한글』은 창세기 1:3의 히브리어 יְהִי אוֹר를 "빛이 생기기를"로 옮긴다. 이 번역문은 가시적 서술어가 없는 목적어 종결 문장이다. 문학적 감수성, 혹은 신학/신앙적 판단에 따라 '바라다'든, '명령하다'든 적절한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열린 문장 구조이다. 독자의 판단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문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빛이 생기기를"과 같은 구문을 대할 때 한국어 사용자들은 보통 '바라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본다. 가령, '행운이 있기를', '건강하기를' 등.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해설집에서도 창세기 1:3의 "빛이 생기기를"은 '바라다'의 의미라고 한다.[1] 이와 달리,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빛이 있으라"이며,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빛이 생겨라"이다. 기존 한글 성경은 모두 명령 어투이다. "빛이 생기기를"은 『새한글』의 번역 특징으로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 새로운 번역이다. 성경과 같은 종교 경전의 번역은 독자의 정황이 중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번역 성경이 있는 상태에서 새 번역이 나올 때, 새 번역본을 대하는 독자의 수용 여부는 예민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 독자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읽혀왔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빛이 있으라" 즉 명령 어투에 익숙하다.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새길교회 교육목사. sh7040@hotmail.com.

1)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20-21.

『새한글』의 “빛이 생기기를”을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는 아마도 낯설고 일부는 불편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빛이 생기기를”이 나오게 된 문법적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빛 창조에 있어 소망과 명령이라는 번역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창세기 1:3에서 사용된 ‘저시브(jussive)’라는 동사 형태 때문이다.[2] 따라서 창세기 1:3의 번역에 관한 문제는 성서 히브리어의 ‘저시브’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동사 형태에 담긴 문법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양태(modality)’ 개념과 ‘저시브’의 쓰임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한글』이 ‘저시브’라는 동사 형태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창세기 1:3에서 ‘저시브’ 형태로 사용된 הָיָה 동사를 용례로 삼았다.[3]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빛이 생기기를”의 선택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양태(modality): 인지와 의지

2.1. 동사 형태의 문법 정보: 양태

동사 형태는 기본적으로 시간(tense/time)과 상(aspect), 양태(modality)에 대한 문법 정보를 담고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며, 상은 보통 완료와 미완료로 나눠진다. 일반 언어학에서 학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양태를 화자가 가진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언어화로 정의하는 의견을 따르겠다.[4] 이 정의에 의하면 화자의 판단과 의지라는 화자의 주관을 문법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양태인 것이다. 양태는 넓게 인지 양태와 의지 양태로 구분할 수 있다.[5] 화자의 판단이란 보통 이성적 사

2) ‘저시브’는 미완료와 형태상 구별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형태로 구별될 때 ‘저시브’는 짧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형(short for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jussive’의 한글에서의 표기 방식은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jussive’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 글처럼 ‘저시브’, 아니면 ‘지시형’ 또는 ‘청유형’이라고 하기도 한다. 통계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본 글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저시브’ 명칭을 사용하였다.

3) 빛 창조는 ‘존재’와 ‘생성’의 문제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 이 주제는 הָיָה 동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고 번역에 있어서는 ‘있다/이다’ 혹은 ‘생기다’와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הָיָה의 형태 곧 ‘저시브’에 집중하기에, ‘존재’와 ‘생성’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4) F. R. Palme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6.

5) 참조, A. Papafragou, *Modality: Issues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Amsterdam: Elsevier, 2000), 3; J. A. Cook,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The Express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47-52. 인지와 의

유 혹은 추론의 결과에 따른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며,[6] 이러한 것을 인지(epistemic) 양태라고 한다. "구름이 많이 낀 것으로 보아서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는 화자가 관찰한 자연 현상이라는 경험에 근거해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비록 단순하지만 화자의 사유와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화가 이뤄지는 것이 인지 양태이다. 이런 경우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직설법 미래형을 사용하며 가정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화자의 의지에 관여된 마음 상태나 기분, 감정 등이 언어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지(deontic) 양태라고 한다. 의지 양태는 엄격한 의무에서부터 허락까지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며 그 경계가 애매할 수도 있다.[7]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동사 형태가 있고, 화자의 마음과 감정 곧 의지를 드러내는 동사 형태가 있다.[8] 동사 형태는 판단이든 의지이든 화자의 주관을 언어화하는 문법 장치이다. 의지 양태는 언어마다 혹은 문법 체계에 따라 가정법/접속법(subjunctive)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명령법(imperative)이나 희구법(optative)을 쓰기도 한다. 창세기 1:3의 '저시브'는 의지 양태와 관련되어 있다.

2.2. 성서 히브리어 '저시브'의 기능과 번역 경향

성서 히브리어에서 '저시브'는 청유형(cohortative), 명령형(imperative)과 함께 '의지(volition)'를 표현하는 동사 체계의 한 그룹을 형성한다.[9] 청유형은 1인칭이며 명령형은 2인칭, '저시브'는 3인칭으로 쓰이기에, 이들은 '의지'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세 동사 형태는

지 양태 외에 역동(dynamic) 양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6) J. Nuyts, "Modality: Overview and linguistic issues", W. Frawley, ed., T*he Expression of Modality*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6, 9.

7) Ibid., 4-5, 9.

8) 양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문장 전체로 할 수 있고, 개별 품사에 따라 동사, 부사, 어휘 의미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참조, P. Portner,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8. 시간/시제 문제 역시 동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부사 등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한 것과 같다. 양태와 관련하여 동사 형태를 말할 때 '법(mood)'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9) J. A. Cook,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237-244; A. Walker-Jones, *Hebrew for Biblical Interpretation* (Atlanta: SBL, 2003), 152; B. T. Arnold and J.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9-66;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Jerusalem: Simor Ltd., 2012), 17-18, 32-33, 40-41, 65. '저시브'가 2인칭으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부정어 אַל과 함께 할 때이다. 요스텐(J. Joosten)은 일부 긍정문 2인칭으로 쓰이는 '저시브' 형태는 3인칭으로 읽혀야 하거나 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150, 각주 25.

어떤 동작/행위(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10] 성서 히브리어에서 의지 양태를 문법화하는 역할을 한다.[11] 화자의 의지는 명령에서부터 단순 희망 사항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며,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저시브'가 이 의미 영역을 담당한다. 언어마다 문법 장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가령, 헬라어만 하더라도 화자의 의지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명령법과 희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의 '저시브'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보통 명령과 소망의 의미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12] 그런데 명령과 소망의 정도를 정확히 분별하기 어렵고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실제 '저시브' 번역의 이런 어려움은 기존 성서 역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칠십인역은 '저시브'를 주로 명령법과 희구법, 직설법 미래형으로 옮기고 때로는 가정법 등 다양한 동사 형태로 대응한다.[13] 영어 번역도 칠십인역의 번역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소망(May …)과 명령(Let …), 때로는 미래(will/shall)로 번역된다.[14] הָיָה 동사의 '저시브' 형태가 『새한글』에서 번역된 방식은 다양하지만, 넓게 명령의 의미 '해라'와 소망의 의미 '바라다', 단순 미래의 '일 것이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칠십인역과 영어 번역의 '저시브' 번역 경향과 대략 일치한다. 이러한 번역 경향은 '저시브'의 특성으로 인해 문맥

10)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41.

11) 요스텐에 의하면 '저시브'는 '명령(창 1:3)', '추천(창 41:33)', '단순 기원(창 31:49)'을 표현할 수 있다. Ibid., 121; 아놀드(B. T. Arnold)와 최(J. H. Choi)는 '저시브'의 기능을 '명령', '소망', '축복', '금지'로 분류한다. B. T. Arnold and J.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61-63. '축복'은 '소망'의 범주에 들어가며, '금지'는 부정문이기에, 실제로는 두 가지 기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12) 워커-존스(A. Walker-Jones)는 '저시브' 번역으로 'Let …'과 'May …'를 제시한다. A. Walker-Jones, *Hebrew for Biblical Interpretation*, 152.

13) 명령법: 창 1:3, 6, 14; 9:27; 13:8; 24:51; 26:28; 30:34; 33:9; 37:27; 49:17; 출 10:10, 21; 신 32:38; 33:6; 삿 6:39; 15:2; 삼하 18:22; 왕상 22:13; 왕하 2:9; 시 35:6; 69:22[23], 25[26]; 72:17; 90:17; 104:31; 109:12, 13; 119:76, 80; 122:7; 대하 9:8; 18:12; 19:7; 잠 5:18; 렘 20:14; 42:5; 50:29; 겔 45:10.
직설법 미래형: 창 9:26; 출 7:9; 18:19; 신 33:24; 룻 3:4; 삼상 10:5; 18:21; 20:13; 28:22; 삼하 14:17; 왕상 1:2; 21:2; 왕하 2:10; 대상 14:15; 22:11; 대하 19:11; 라 1:3; 욥 13:5; 24:14; 시 72:16; 81:16; 사 30:8; 렘 13:10; 겔 16:15; 호 14:7; 암 5:14; 미 1:2.
희구법: 민 23:10; 왕상 8:57; 10:9; 룻 2:12, 19; 욥 1:21; 3:4, 7(2회); 16:18; 27:7; 시 33:22; 113:2.
드물게 직설법 부정과거: 왕하 19:25; 시 9:10; 104:20. 가정법: 민 12:12; 레 15:24.

14) 영어 성경 중에서 직역하는 성향이 강한 NAS나 NRS조차도 '저시브'로 일관되게 하나의 형태를 번역하지 않고, "May …"와 "Let …"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시 104:31의 '저시브'를 NAS는 "Let the glory of the Lord God endure forever"로, NRS는 "May the glory of the Lord God endure forever"로 번역한다(시 109:12, 13도 동일). 시 69:22[23]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저시브'를 NAS는 "May …"로, NRS는 "Let …"으로 번역한다(시 119:76도 동일). 심지어 시편 69:25[26]에서는 '저시브'가 두 개가 있는데 NRS는 전반부의 '저시브'는 "May …"로 후반부의 '저시브'는 "Let …"으로 번역한다.

이나 번역자가 원하는 해석의 방향에 따라 명령과 소망 혹은 그 외에서 선택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저시브'가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에, 특히 『새한글』이 취하는 번역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넓은 편이다.

창세기 1:3의 '저시브'는 칠십인역에서는 "γενηθήτω φῶς", 영어 성경(KJV, ESV, NAS, NRS, NET, NIV)에서는 "Let there be light"로 번역되어 있다. 모두 명령의 의미이다.[15] 불가타에서는 "fiat lux" 즉 'fio(되다)' 동사의 접속법 현재가 쓰였다. 독일어 성경(LB[1945], LB, ZB)에서는 대부분 접속법 I식(Konjunktiv I)이 사용되어 "Es werde Licht!(빛이 있으라[생겨나라]/있기를[생기기를] 바란다)"로 되어 있고,[16] 프랑스어 성경(TOB, LSG) 역시 접속법(Subjonctif)을 사용하여 "Que la lumière soit!(빛이 있으라/있기를 바란다)"로 번역한다. 위 세 언어에서 사용된 접속법은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소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적어도 동사의 형태로서는 명확하게 명령과 소망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위 세 언어 역본에서는 명령인지 소망인지 단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명령과 소망을 문법 형태로 구분하는 그리스어 칠십인역과 영어 성경 역본은 창세기 1:3의 '저시브'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다.

2.3. 명령과 소망 구분 방법

동일한 동사 형태로 명령과 소망을 표현하여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문법적 정보 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언어 외적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 외적 요소를 다루는 분야를 화용론(pragmatics)이라고 한다. 성서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동사 형태 해석, 특히 양태와 관련하여서 화용론의 역할을 주목한다.[17] 언어 외적 요소는 화자의 사회적 위치나 화자와 청자와의 위계 관계,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정황 등 언어가 전달되는 환경을 말한다. 언어 외적 요소는 '저시브'처럼 하나의 문법 형태가 다양한 뉘앙스를 만들어 낼 때,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준다.[18] 성서 히브리어에 쓰인 '저시브'의 명령과 소망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문법적 정보 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화자와 청자의 신분과 관계에 따라 명

15) 성서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창 1:3의 '저시브'를 보통 명령의 의미로 본다. 쿡(J. A. Cook)은 "Let there be light"로 번역한다. J. A. Cook,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243; 요스텐은 '명령'이라고 한다.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121.

16) BB는 "Es soll Licht werden!(빛이 있어야 한다!)"으로 의무, 당위의 의미로 번역한다.

17) A. Walker-Jones, *Hebrew for Biblical Interpretation*, 152;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116-123; J. A. Cook,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52-53.

18) J. Joosten,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121-123.

령과 소망은 달라질 수 있다. 화자가 권위가 있고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와 화자에게 권위가 없고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동일한 표현일지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구약성서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하나님과 사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실은 명령과 소망의 우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되어야 한다. 가령,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저시브'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소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신분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가령, 왕과 일반 백성, 장인과 사위, 형과 동생 등의 신분과 관계를 말한다. 둘째, 글의 장르와 글의 성격에 따라 화자의 의도는 명령과 소망으로 갈릴 수 있다.[19] 구약성서에서 '저시브'가 나타나는 글의 성격은 단순 대화에서부터 예언, 규정(율법), 기도 등으로 나눠진다. 단순 대화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 문화적 관계가 중요할 것이며, 예언과 규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이기에 비록 사람이 말할지라도 신적 권위가 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뤄지기에 화자와 청자의 신분과 관계가 일정 역할을 한다.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의 성격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창조 기사의 화자는 하나님이기에 이를 참고삼아서 예언이나 규정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언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셋째, 화자가 한 발언의 실현 통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화자가 자신이 한 발언의 결과에 대한 통제 여부는 명령과 소망을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발언의 결과 곧 실현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사람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예언은 실현 가능성이 100%이지만, 기도는 실현 가능성이 100%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화자가 자신의 발언의 실현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발언은 명령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명령 해석과 소망 해석 중에서 우열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략 이러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새한글』에서 הָיָה 동사의 '저시브'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보겠다.

---

19) 『새한글』은 머리말에서 "원문의 문학 갈래(장르)에 따른 특징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여 …"라고 한다.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ii; 『새한글』에서 글의 장르에 따른 번역 방법을 다룬 연구 논문이 있다.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74-376.

3. 『새한글』의 '저시브' 번역

창세기 1:3의 "빛이 생기기를"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창세기 1:3처럼 하나님이 '저시브' 동사 형태의 화자로 등장하는 본문이다. 둘째는 '저시브'가 창세기 1:3처럼 소망 '바라다'로 번역된 예이다. 셋째는 소망이기는 하지만 '바라다'가 생략된 번역을 알아보겠다. 이 기준으로 『새한글』의 번역 경향을 살펴보겠다.

3.1. 화자가 하나님

『새한글』에서 하나님이 화자로 된 '저시브' 문장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된다. 첫째는 '해라'이며, 둘째는 '일 것이다'이다.

3.1.1. '해라'

하나님(예언자 포함)의 발언은 주로 예언서에 있다(사 30:8; 겔 45:10; 말 3:10).[20] 아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예언은 '해라'와 같은 명령 어투와 잘 어울린다.[21]

> 이사야 30:8
> 이제 너는 가라. 그들이 있는 데서 서판에 이 말을 쓰고 두루마리에 이 말을 적어 넣어라. 그래서 이 말이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3인칭 '이 말'이며, 서술어는 הָיָה의 '저시브' 형태이다. '저시브'의 번역 경향에 따르면 이 문장은 '이 말이 훗날에 영원한 증거가 1) **되기를 바란다**, 2) **될 것이다**, 3) **되어야 한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새한글』은

---

20) 레 15:24는 율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외적인 번역이다.

> 남자가 여자와 정말로 함께 누워서, 생리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저시브'는 '가정'의 의미로 번역된다. "남자가 여자와 정말로 함께 누워서"는 אִם으로 시작하는 조건절이다. 『새한글』은 '저시브'로 된 "생리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를 앞 문장처럼 조건절로 보았지만, '해라'처럼 의무/당위의 의미로 옮길 수도 있다. 이 구절의 '저시브'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21) 『새한글』은 부정어 אַל을 동반한 '저시브'의 부정문은 글의 장르에 상관없이 '없도록 하세요' 혹은 '하지 마라' 등의 부정 명령으로 번역한다. 예, 창 13:8; 37:27; 겔 2:8; 렘 50:26, 29; 잠 3:7; 22:26; 23:20; 24:28; 전 7:16.

"… 되게 해라"로 하여서 '의무'와 '당위'의 의미를 반영한 3)을 선택한다. '되게 해라'의 행위 주체는 2인칭 곧 예언자 이사야로 번역되어 있다. 3인칭 '저시브'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들 '가라', '쓰고', '적어 넣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2인칭 명령법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사야가 행하면, 서판에 적은 말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이사야의 역할을 고려하면 3인칭 '저시브'를 마치 2인칭 명령으로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다. '저시브' 동사 형태에 선행하는 2인칭 명령형 동사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예언 문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령 '해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망의 의미 '…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는 예언자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 에스겔 45:10
> 너희는 공정한 저울을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밧도 올바른 것으로 **써야 한다**.

에스겔 45:9-17은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 45:10은 청자의 실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는 의무/당위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저시브'라는 동사 형태를 고려한다면 '너희가 공정한 저울을 쓰기를(바란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언은 소망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정한 저울은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오늘날 상법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와 같은 규정은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다. 규정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에, 규정은 '바라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정한 규정은 절대 복종을 전제하고 있기에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시브'를 '바라다'로 번역하여도 문법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예언과 규정이라는 글의 장르와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말라기 3:10
> 십일조를 빠짐없이 다 창고로 가져와서 양식이 나의 집에 있도록 **해라**.

예언서 말라기에는 예언자 말라기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번갈아 나온다.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한다. "… 양식이 나의 집에 있도록 **해라**"에서 주어는 '양식'이며, 서술어는 הָיָה의 '저시브' 형태이다. 3인칭이 주어이지만 2인칭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로 앞 문장의 '가져와서'와 뒤따

르는 문장의 '시험해 보아라'의 히브리어는 2인칭 명령형이다. 앞뒤 문장을 고려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식은 누군가가 가져가야 한다.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곧 청자이기에 2인칭으로 한 것 같다. 인칭의 문제를 떠나 『새한글』은 '저시브'의 의미를 살렸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예언 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3.1.2. '일 것이다'

예언이나 예언의 성격을 가진 본문에서 『새한글』은 자주 '저시브' 문장을 '일 것이다'로 번역한다(출 7:9; 9:22; 10:21; 렘 13:10; 호 14:6).[22] 하나님이 한 발언의 실현 가능성은 100%를 전제하고 있다. 소망은 화자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일 것이다'는 기본적으로 단순 미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망 표현 '바라다'뿐만 아니라 '일 것이다'도 예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본문의 정황이나 예언서와 같은 글의 장르에 따라 '일 것이다'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출애굽기 10:21
> 너의 손을 하늘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위에 **깔릴 것이다**.
> 예레미야 13:10
> 그래서 그들은 아무 데도 쓸 수 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출애굽기 10:21에 의하면 모세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어둠이 깔리게 된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어둠은 반드시 깔리게 된다는 것이다. 모세의 행위는 변수이지만, '깔린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현 가능성이 개연성일 수는 없다. 예레미야 13:10은 유다 백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실행된다는 전제가 있다. 성경 독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동사 형태는 단순 미래라고 할지라도 개연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미래를 사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일반 언어학의 입장에서 직설법 미래형은 단순 미래라는 시간과 양태 개념을 아우르는 약간 애매한 성격이기도 하다.[2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칠십인역과

---

22) '일 것이다'가 예언 본문이 아닌 데서 나타나기도 한다.
예, 창 49:17 "단은 길 위의 뱀, 샛길 위의 독뱀일 터."; 시 81:15[16]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굽실거리겠지만, 이스라엘의 때는 영원할 것입니다."; 잠 3:8 "그것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너의 뼈에 좋은 물약이 될 거야."

23) J. Lyons, *Semantics: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677-678. 이런 점

영어 번역 성경도 '저시브'를 자주 직설법 미래형으로 번역한다.

비록 '저시브' 형태의 הָיָה 동사의 제한된 예들을 참고했지만, 『새한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된 '저시브' 문장을 놓고서 '해라'와 '일 것이다'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쟁 구도라면 창세기 1:3의 '저시브'도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새한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소망의 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기피한 인상을 주는 『새한글』은 창세기 1:3에서는 오히려 '바라다'를 선택한다. 그러면 '바라다'는 어떤 경우에 자주 쓰이는지 알아보겠다.

3.2. '바라다'

『새한글』이 '저시브' 문장을 '바라다'로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화자가 사람일 때이다. 소망이란 화자가 마음속으로 이뤄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망 표현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실현 가능성을 화자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용된다. 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화자가 아니라 청자 혹은 제3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력이나 위계질서의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바라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발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하나님의 발언 중에서 '바라다'로 번역된 예는 찾기 어렵다. '바라다'가 많이 쓰이는 본문은 일상 대화와 기도, 복과 저주를 빌 때이다. 일상 대화에서 '하시오/해 주시오'는 대략 두 개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화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이다(창 24:51; 30:34; 33:9).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나 허락이나 권한을 가진 자가 말할 때이다. 둘째는 상하 관계와 상관없거나 애매할지라도 간청할 때이다(민 12:12; 삿 15:2; 왕상 21:2; 왕하 2:9).[24]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 어투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강한 요청에 해당한다.[25]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 실현을 요구하는 소망 곧 '바라다'는 본질적으로 기도와 잘 어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일 때도 '바라다'로 번역한다(시 33:22; 104:31; 113:2).[26] '바라다'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에서 '저시브'를 '일 것이다'로 번역하는 것은 형태/의미론의 시각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4) 삼상 18:17 "내가 그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게 해야지." 사울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다.

25) 왕하 2:9 "선생님의 영 가운데서 두 몫이 저에게 넘어오도록 해 주십시오."에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기가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는지 묻는데, 이때 엘리사의 답변이 왕하 2:9이다. 간청의 내용이면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윗사람에게 말할 때 명령 어투로 번역한다.

26) 기도에서 '저시브'는 명령 어투 '(해) 주시오'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다(삿 6:39; 삼하 24:17;

임마누엘 양식에서도 많이 쓰인다(왕상 8:57; 삼상 20:13; 삼하 14:17; 대상 22:11, 16; 대하 19:7 [약간 다른 내용]).[27]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문장에서도 쓰인다(욥 1:21).

'바라다'와 '해라'는 일상 대화와 기도에서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28] 실제 『새한글』은 동일한 내용을 '바라다'와 '해라'로 번역하기도 했다. 역대하 18:12 "예언자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세요**"는 왕의 심부름꾼이 예언자 미가여후에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의 라못으로 치러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언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역대하 18:12의 평행구절에서는 다르게 번역한다. 열왕기상 22:13 "예언자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과 같기 **바랍니다**"에서는 소망의 의미로 번역한다. 열왕기상 22:13과 역대하 18:12에서는 모두 '저시브'가 사용되었음에도 다르게 번역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명령과 소망이 모두 '저시브' 동사 형태의 허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번역에는 권력관계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이 본문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애매하다. 아합 왕의 심부름꾼은 아합과 동일한 권위와 힘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 왕의 심부름꾼은 왕의 대리인으로 예언자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왕의 심부름꾼은 예언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왕의 심부름꾼은 명령을 할 수 있다. 역대하 18:12의 명령 '해 주시오'는 왕의 심부름꾼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대화를 만든다. 이와 달리, 열왕기상 22:13의 소망 '바라다'는 왕의 심부름꾼과 예언자 미가여후 중에서 청자에 해당하는 예언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번역이다. 설령 왕이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이다. 미가여후는 왕이 원하지 않는 예언도 할 수 있다. 소망 표현은 본래 화자가 자신의 발언의 실행을 통제하지 못할 때 쓰인다. 따라서 '바라다'는 청자를 배려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열왕기상 22:13은 예언자의 권위를 세우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3의 '저시브'가 놓여 있는 상황과 다르기는 하지만,

---

대상 21:17; 느 1:6; 시 9:9; 35:6; 69:22, 26; 72:17; 80:17; 90:17; 119:76).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임에도 명령 어투가 허용된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7) 삼상 20:13; 삼하 14:17; 왕상 8:57; 대상 22:11, 16; 대하 19:7.

28) 『새한글』에는 '일 것이다'와 '바라다'가 호환된 경우도 있다. 미 1:2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맞서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의 '일 것이다'는 글의 장르뿐만 아니라 화자의 성격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미 1:2와 동일한 표현이 미가처럼 예언서에 속하는 렘 42:5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참되고 믿을 만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에도 있다. 이 구절에서 『새한글』은 '저시브' 문장을 '바라다'로 번역한다. 미 1:2는 예언자 미가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반면, 렘 42:5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다.

위의 예는 ‘바라다’의 어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3. ‘바라다’가 생략된 ‘…을(를)’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 표현 역시 사람의 발언에서 주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발언에서는 찾기 어렵다. 『새한글』에서 ‘바라다’ 서술어가 생략되는 번역은 저주나 복을 비는 문장(창 9:26, 27; 출 18:19; 신 33:24; 시 122:7[평화]; 잠 5:18), 임마누엘 양식(출 18:19; 라 1:3), 그 외 기타(왕하 2:10)에서 나타난다. 소망은 행위 실현이나 행위 실현자를 통제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화자가 단순히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과 잘 어울린다. 따라서 저주와 복이나 임마누엘 양식은 소망 표현과 잘 맞다. 『새한글』이 ‘바라다’를 생략하여 번역하더라도, 복과 저주나 임마누엘 양식 같은 특정 표현에 한정되어 있다. “빛이 생기기를”은 이러한 경향과 동떨어져 있다. 우리말에서도 ‘바라다’가 생략된 표현은 ‘… 건강하기를’처럼 안부 인사 같은 내용에서 자주 쓰인다. 이런 점에서 창조 기사와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 표현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 표현 중에서 열왕기하 2:10은 특정 표현 양식이 아니라 일상 대화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어려운 것을 해달라” 한다고 하면서,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이라고 한다(왕하 2:10).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 표현이다. 『새한글』은 엘리야의 답변에 사용된 ‘저시브’를 엘리야가 행위 실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망으로 번역한 것이다.

4. 나오는 말

동사 형태 ‘저시브’의 기능에 관한 것은 형태론/의미론과 같은 문법의 문제이다. 문법은 보통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 ‘해라’와 소망 ‘바라다’는 모두 성서 히브리어의 ‘저시브’ 동사 형태의 의미 영역 안에 있다. ‘저시브’ 동사 형태의 기능에서 볼 때 “빛이 생기기를”은 문법적으로 가능한 번역이다. 문법 외에 본문의 정황과 글의 장르를 고려하는 화용론 관점은 문법에 비해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높아서 번역자 또는 해석자에 따라 번역과 해석의 폭이 넓을 수 있다. 따라서 문법이 허용하는 의미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한글 번역 성경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창세기 1:3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3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주되는 '율법/규정'이나 '예언'과 가깝다. 그런데 이런 본문에서 הָיָה 동사의 '저시브'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로 옮긴 예는 찾기 어렵다. '바라다'와 같은 소망의 의미를 담은 번역은 '일상 대화'와 '기도', '복과 저주' 같은 사람들의 발언에서 주로 나타난다. 창세기 1:3처럼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 표현은 '복과 저주' 문장에서 다수 있다. 『새한글』은 '저시브'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해라'와 '일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그런 점에서 "빛이 생기기를"은 『새한글』에서 '저시브' 번역의 일반적 경향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명령과 소망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지와 마음을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고, 실제 『새한글』에서 그런 예를 확인하였다(왕상 22:13; 대하 18:12). 명령은 행위 실현이나 행위 실현자를 통제할 힘이나 권한을 가진 화자와 잘 어울린다. 이런 화자의 발언이 명령 형식으로 드러난다면, 그 발언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혹은 이뤄질 수 있는 필연적 속성을 가지기 쉽다. 소망은 성취 여부가 화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소망은 본질적으로 개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연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독자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선이해와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빛이 생기기를"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표현만 하여도 '무에서 유(ex nihilo)' 창조가 가능하다고 성경 독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한 번 문자화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세계를 가지게 되어 해석의 자율성을 얻게 된다. 『새한글』의 "빛이 생기기를"은 창조 사건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창조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달라지게 된다. 기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의 "빛이 있으라"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빛이 생기기를"에서는 하나님이 겸손한 분으로 와닿는다. 하나님이 에스겔 45:10에서 "너희는 공정한 저울을 써야 한다"가 아니라 "… 저울을 쓰기 **바란다**", 말라기 3:10에서는 "십일조를 빠짐없이 다 창고로 가져와서 양식이 나의 집에 있도록 해라"가 아니라 "… 나의 집에 있으면 **좋겠다**"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과 비교하여 창조 기사에 나타나는 『새한글』의 하나님은 강한 위엄의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속성을 가진 분이 된다. 『새한글』의 머리말에서 제시한 번역 특징에는 "… 하나님의 친밀감이 드러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29] "빛이 생기기를"은 이러한 번역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빛이 생기기를"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친밀감에 손을 들어준 결과이다.

『새한글』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3절 외에서도 '저시브' 동사 형태는 명령이 아니라 '바라다'가 생략된 소망으로 번역한다(창 1:6, 9, 11, 14, 15, 20, 22, 24). 이들 역시 본 글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저시브'의 용례를 הָיָה 동사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용례를 참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 글에서 이뤄진 연구가 성서 히브리어의 '저시브'에 대한 이해와 번역에 도움이 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Keywords)
창세기 1:3, 창조, 성서 히브리어, 양태, 저시브.
Genesis 1:3, creation, biblical hebrew, modality, jussive.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29)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ii-iii.

<참고문헌>(References)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Arnold, B. T. and Choi, J. H.,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ook, J. A.,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The Express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Joosten, J., *The Verbal System of Biblical Hebrew*, Jerusalem: Simor Ltd, 2012.

Lyons, J., *Semantics: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Nuyts, J., "Modality: Overview and linguistic issues", W. Frawley, ed., *The Expression of Modality*,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Papafragou, A., *Modality: Issues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Amsterdam: Elsevier, 2000.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ortner, P.,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Walker-Jones, A., *Hebrew for Biblical Interpretation*, Atlanta: SBL, 2003.

<Abstract>

Command or Wish? The Significance of the Jussive Rendering in Genesis 1:3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Sang Hyuk Woo
(Saegil Church)

This article examines the rendering of Genesis 1:3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which translates the Hebrew יְהִי אוֹר as “May light come into being”, in contrast to the imperative formulations found in earlier Korean versions “Let there be light”. The study investigates the grammatical, semantic, and pragmatic basis of this translation,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Biblical Hebrew jussive as an expression of volitional modality.

The jussive encodes the speaker’s volition and occupies a semantic continuum ranging from directive force (command, obligation) to optative expression (wish, desire). As a third-person verbal form, its meaning is often not fully specified by morphology alone and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contextual and pragmatic factors. These include the authority of the speaker,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addressee, the literary genr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speaker exercises control over the realization of the action. In contexts of divine speech, where the speaker is presumed to possess absolute authority and control, the jussive is typically interpreted as expressing command or certain realization rather than mere wish.

A comparative analysis of ancient versions, including the Septuagint and the Vulgate, as well as major modern English translations, demonstrates that Genesis 1:3 has overwhelmingly been rendered in imperative or declarative forms, thereby underscoring divine authority and the performative efficacy of God’s speech. By contrast, optative renderings are mo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human discourse, particularly in prayers, blessings, and petitions, where the speaker lacks control over outcomes and expresses dependence on an external agent.

Against this translational background, the optative rendering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established conven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a choice reflects a deliberate translation strategy that seeks to foreground relational and affective dimensions of divine

speech, in line with the translation's broader theological orientation. As a result, the creative utterance in Genesis 1:3 may be understood not only as a performative command but also as an expression of divine intention or desire.

In conclusion, while the optative rendering remains grammatically defensible within the semantic range of the jussive, it constitutes a notable interpretive shift. This shift carries theological implications by subtly reframing the portrayal of God in the creation narrative, highlighting relational intentionality alongside divine authority and inviting renewed reflection on the role of translation in shaping theological understanding.